

南韓地域 靑銅器時代 前期의 上限과 下限

李亨源

한신대박물관 학예연구사

목 차

I. 머리말	III. 전기의 상한과 하한
II. 청동기시대 시기구분과 전기의 개념	1. 상한
1. 시기구분의 현황	2. 하한
2. 전기의 개념 설정	IV. 맺음말

I. 머리말

본 발표문은 “한국 청동기시대 시기구분” 가운데 전기의 편년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자가 학회로부터 부여 받은 주제는 전기의 상한과 하한연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유적과 유구, 유물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연대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절대연대를 보조적 수단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연구대상 자료의 공간적 범위는 남한지역으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전기의 상한과 하한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이와 연관된 조기와 후기의 내용도 일부 언급할 것이다.

그런데 남한지역 전체에 대해 전기 청동기문화를 세부 주제로서 일괄적으로 편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최근의 폭발적인 발굴성과에 따른 자료의 방대한 양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기의 물질문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청동기시대 시기구분에 대한 연구현황 속에서 전기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한 후, 기존의 편년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기의 상한과 하한자료를 지역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청동기시대 시기구분과 전기의 개념

1. 시기구분의 현황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발표자의 편년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크게 보면 청동기시대는 2분기설, 3분기설, 4분기설 등 모두 3가지로 누눌 수 있다.

먼저 2분기설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서 임병태(1969), 後藤直(1973), 이백규(1974) 등의 연구에 의한 것이다. 즉 전기는 비파형동검을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문화와 공별토기, 각형토기, 적색마연토기를 표지로 하며, 후기는 세형동검문화와 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등으로 대표된다.

3분기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부여 송국리유적의 발굴성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藤口健二(1986)의 토기인식으로부터 기왕의 전기와 후기 사이에 중기가 설정된 것이다. 이후 하인수(1989)는 비파형동검, 송국리식토기,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송국리형주거지, 개석식지석묘, 稻作 및 송국리문화의 일본으로의 전파 등을 언급하면서 청동기시대 중기를 종합적으로 보완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이 3시기설은 별 무리없이 수용되었으며(宋滿榮 1995), 安在皓(1996, 2000)는 여기에 사회구조적인 의미(군집형태 취락에서의 2~4동으로 분동된 세대공동체화, 유력 개인 또는 유력집단의 등장)를 부여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안재호의 3분기설은 4분기설로 변경된 후 다시 또 다른 3분기설로 이어진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송국리유형의 부각 및 새로운 시기 설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되, 이를 중기가 아닌 후기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 이홍중(1996)은 유물의 편년이 아닌 사회의 변화 요인을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후기로 분류하고 있는 점토대토기문화를 시기구분으로 삼기에는 미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新來한 세형동검, 점토대토기, 적석목판묘 사용집단이 재지의 지식묘 사회를 재편 또는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획기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林淳發 1993b; 李健茂 1994).

정한덕(1999)은 가락동유형-전기, 혼암리유형-중기, 송국리유형-후기의 시기구분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송국리유형을 후기로 나누는 점에서는 이홍중과 동일하지만, 점토대토기를 철기시대의 시작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가락동유형을 혼암리유형과 분리하였다는 점이 기존의 편년안과 다른 점이다(李亨源 2002).

4분기설은 안재호가 2000년도에 주장한 돌대문토기문화의 조기설정과 함께 등장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압록강유역 또는 요동지방의 田作중심 농경문화가 한반도의 신석기 말기문화와 접촉하여 성립한 시기를 말한다(安在皓 2000). 청동기시대 편년연구사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진전 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전반까지는 전기-중기-후기의 3분기설 또는 조기-전기-중기-후기의 4분기설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발표자 역시 3분기설을 따랐는데 조기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李亨源 2002). 3분기안을 사용했던 많은 연구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조기로 설정된 돌대문토기 관련 유적이 보고 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것을 감안하면, 4분기설은 3분기설을 포괄하는 시기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안재호(2006)의 4분기설은 작년에 발표된 그의 박사논문을 통해 다시 3분기설로 바뀌게 된다. 물론 이 새로운 3분기설(이후 신3분기설(안)로 칭한다)은 후기의 점토대토기문화를 청동기시대에서 제외하면서 중기의 송국리유형문화를 후기로 재배열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조기-전기-후기로 구분하는 안이다(표1 참조).

〈표 1〉 안재호(2006)의 청동기시대 단계 설정 (신3분기안)

시기	조기	전기	후기
표준 토기	이중구연토기 (기존의 말기줄문토기) 돌대문토기	가락동계토기, (역삼동계)혼암리계토기 ※구순각목 출현시점부터 전기후반	송국리식토기 검단리계토기

현재 청동기시대 연구자들은 안재호의 4분기안과 신3분기안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비교적 간단하다. 송국리유형을 수석리유형(점토대토기문화)에 앞선 시기로 설정하여 사용해 온 것은 상대편년상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며, 철기가 공반하는 수석리유형을 초기철기시대로 편년하면 된다. 그렇지만 조기(미사리식 돌대문토기)-전기(가락동식·역삼동식·혼암리식토기)-중기(송국리식토기)-후기(수석리식 원형점토대토기)의 4분기안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조기(미사리식토기)-전기(가락동식·역삼동식·혼암리식토기)-후기(송국리식토기)를 따를 것인지 사이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발표자는 지금까지 송국리유형을 청동기시대 중기로 보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여기에서는 안재호의 신3분기설을 따라 후기로 사용한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시기 가운데 철기를 수반하지 않는 단계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하였으나(李亨源 2005), 최근 장수 남양리나 완주 갈동유적 등 원형점토대토기단계 유적에서 철기가 출토되는 점을 고려하면, 점토대토기단계(수석리유형, 늑도유형)를 초기철기시대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

이다(金元龍 1986; 한국고고학회 2007).

2. 전기의 개념 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기-전기-후기의 신3분기설에 따라 전기의 문화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시기에 해당하는 조기와 후기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서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먼저, 안재호(2000)에 의해서 설정된 청동기시대 조기는 돌대문토기를 표지로 하면서 신석기시대 말기 형식의 유물과 공반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 시기는 쌀, 보리, 밀, 조 등의 재배작물과 함께 수확용의 석도를 통해서 볼 때, 말기 신석기시대에서 농경을 기반으로 한 청동기시대로 진입하는 과도기로 이해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 단계의 문화상을 대표유적의 이름을 딴 羨里類型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여 사용하고 있다(李亨源 2001・2002). 주거구조에서는 미사리식주거지(방형 또는 장방형 평면에 판석부위석식노지 설치)를 특징으로 하며, 토기로는 미사리식토기(각 목돌대문토기)와 삼각판입석촉이나 반월형석도, 편평석부 등의 석기를 표지로 한다. 유적의 입지는 충적지로 한정된다.

발표자는 2002년도 논문 당시까지만 해도 미사리유형을 즐문토기와 공반하거나 즐문토기적 요소가 보이는 미사리식토기단계(미사리유형 I 기)와 이러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고 무문토기적 특징만을 보이는 미사리식토기단계(미사리유형 II 기)로 나누어 전기 내에서의 시간적 선후관계 및 문화양상의 차이를 설명한 바 있다(李亨源 2002). 지금부터는 안재호의 조기설을 적극 수용하여 발표자의 미사리유형 I 기를 조기로, 미사리유형 II 기를 전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결국 청동기시대 조기란 즐문토기 말기 요소와 무문토기 요소가 결합된 시기, 그리고 이와 동시기의 무문토기 단순기로서 이전 시기에 비해 농경의 비중이 높아진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전환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 조기문화의 기원은 요동 및 압록강유역의 농경문화에서 찾는 견해가 유력하다(安在皓 2000; 李亨源 2002; 朴淳發 2003; 千羨幸 2005)

청동기시대 전기는 즐문토기적 잔재가 거의 간취되지 않는 무문토기 일색으로, 조기부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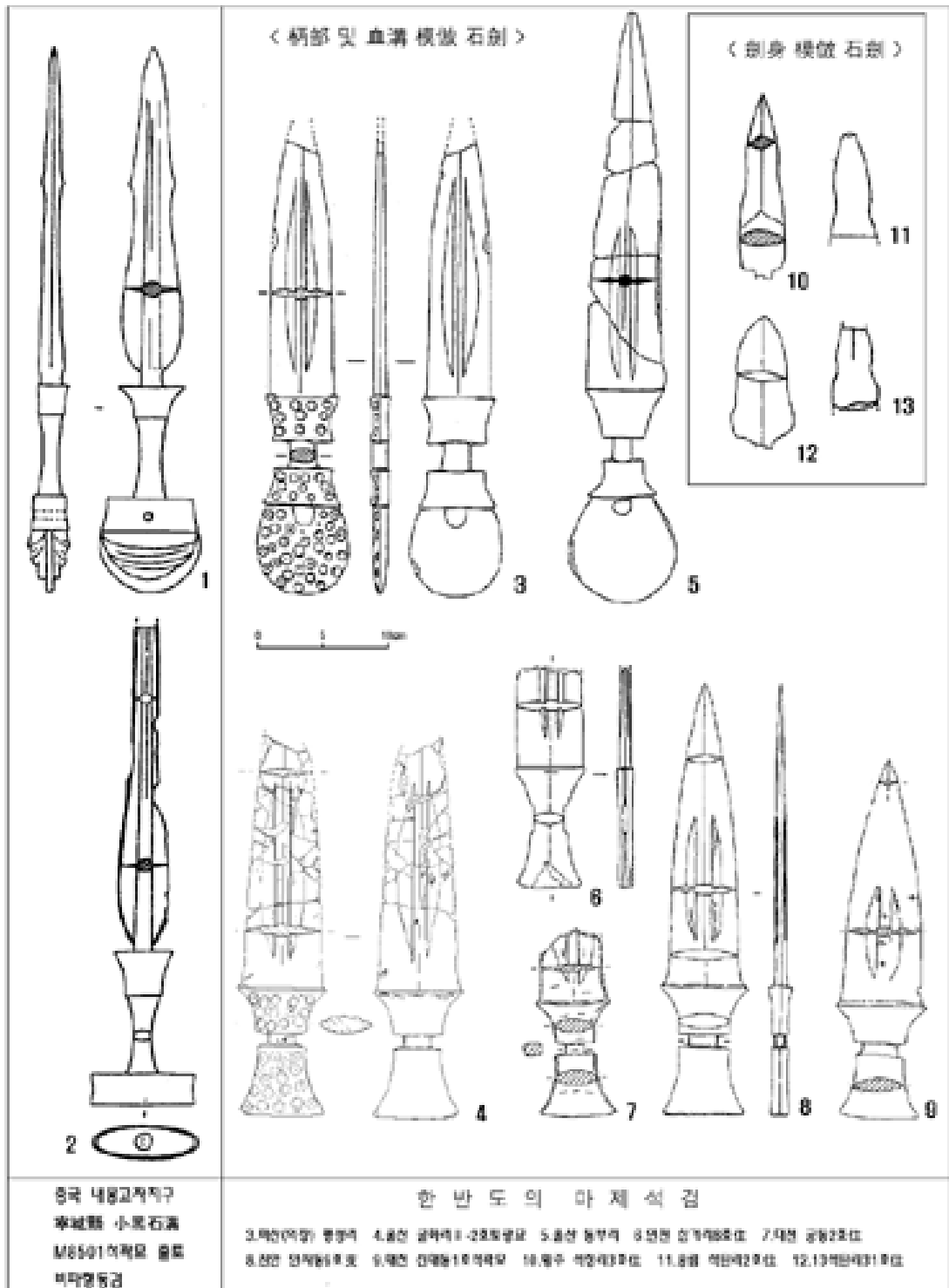
1) 발표자의 이전 논고(李亨源 2002)에서 사용했던 중기는 이하에서는 모두 후기로 통일하여 부른다.
2) 이건부(2006)는 남한의 미사리유형을 비롯하여 북한의 오동유형, 신암리유형, 공귀리유형 등을 조기로 편년하고 이를 청동기문화의 여명기로 규정하였다.

어진 미사리식토기를 포함하여 가락동식토기, 역삼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에 따르면 각목돌대문의 미사리식토기 발견 예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 중구연단사선문이나 공별문 등이 주요 문양대를 구성하는 가락동식·역삼동식·혼암리식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이 단계부터는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마제석검과 청동기가 출현한다. 마제석검의 경우 비파형동검을 모방한 유흥구이단병식석검이 전기 전반부터 나타나지만 비파형동검은 전기중반 또는 후반부터 출토된다³⁾. 즉 전기 청동기사회는 요서 또는 요동 비파형동검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동기만을 기준으로 보면, 비파형동검문화를 전기로 보고, 동검의 영향을 받아 마제석검만 존재한 선동검기(전기전반)와 동검이 사용된 비파형동검기(전기후반)로 세분가능하다.

그렇다면 연대가 가장 이르게 편년되는 혈구이단병식석검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것인가. 발표자는 이러한 형태의 석검은 가락동유형의 기원지로 추정되는 압록강~청천강유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직 이 지역에서 중강 토성리의 혈구유경식석검 외에 대전 궁동이나 울산 굴화리유적 출토품과 같은 혈구이단병식석검이 출토된 바는 없으나, 고고학적인 정황상 앞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형식의 석검은 병부 및 신부의 혈구 등의 형태로 보아 비파형동검을 모방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李亨發 1993a; 近藤喬一 2000). 특히 遼寧省과 접해 있는 내몽고자치구 寧城縣의 小黑石溝 M8501 石槨墓(項春松·李義 1995)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과 의창 平城里(沈奉謹 1984)와 울산 東部里(有光教一 1959) 출토 마제석검은 병부와 반타원형의 검파두식은 너무 흡사하다(도면 1 참조). 아마도 비파형동검을 직접 입수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모델로 하여 만든 代價品적 성격을 가지는 威誂財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中村大介 2003; 宮本一夫 2004). 이와 같은 견해에 찬성하면서 더 나아가 발표자지는 비파형동검의 모방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즉 평성리·동부리를 비롯하여 궁동 출토품과 같이 비파형동검의 柄部 및 血溝를 모방한 석검(도면 1-3~9)과 서북한의 황주 석정리 3호주거지(리경철 1996) 출토품이나 송림 석탄리 2호·31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예와 같이 비파형동검의 劍身을 모방한 석검(도면 1-10~13)이 있다. 이들 병부 및 혈구

3) 발표자는 기존에 선동검기를 전기로, 비파형동검기를 중기(현재의 후기)로 보았으나(李亨源 2002), 최근의 연구성과들로 볼 때 문제가 있어 이를 철회한다.



<도면 1> 전기 청동기시대의 마제석검과 이와 관련된 중국 동북지방의 비파형동검 (1/5)

모방석검과 검신 모방석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李亨源 2006).

近藤喬一(2000)은 마산(舊의성) 평성리나 울산 동부리 출토 마제석검을 고려하여, 遼西의 영성부근에서 한반도의 경상도지역으로 이 타입의 동검이 들어온 후, 이를 직접 보고 모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발표자는 이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오히려 동검문화의 중심지인 요령 지역의 外緣地帶에서 석검으로 만들어진 후⁴⁾, 한반도 남부로 이입된 것으로 보고 싶다. 아마도 가락동유형의 기원지인 압록강~청천강유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가락동 유형 집단의 남하를 계기로 하여 한반도 남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락동유형 I 기 단계에는 비파형동검의 代價品인 이단병식의 마제석검만 존재하였지만, II기 또는 III기 단계가 되면 대전 비래동 1호 고인돌 출토예를 통해 비파형동검 자체가 남한지역으로 유입되고 곧 이어 현지 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⁵⁾. 이와 비슷한 시점에 북한지역에도 선암리나 대아리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파형동검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선암리, 대아리, 비래동의 비파형동검(A군-돌기부가 없음)이 송국리 출토예 등과 같은 전형적인 비파형동검(B군)보다 연대가 올라가는 것으로 본 庄田愼矢(2005)의 견해는 타당하다⁶⁾. 그런데 그는 B군 동검이 요령지방에서 자주 보이는 것에 반하여, A군과 공통하는 형식의 동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원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발표자가 판단하기에는 小黑石溝 M8501에서 출토된 2점의 비파형동검 가운데 한 점(도면 1-2)이 A군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요령 지역에 A군과 B군의 비파형동검이 공존하는 가운데, A군 동검이 B군 동검보다 먼저 한반도로 이입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A군 비파형동검과 공반된 석촉은 삼각만입촉과 이단경촉인데, 특히 선암리에서 보이는 경부단부가 돌출된 이단경식석촉의 경우는 익산 영동동 I-3호·II-7호주거지, 대전 노은동 3호주거지, 대전 신대동 1호지석묘, 진안 풍암 16호지석묘 등에서

4) 발표자의 과분일지 모르겠지만, 요령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에서 마제석검은 혈구 없는 유경식석검이 일부 출토되는 현상을 제외하면,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길림성의 서단산문화에서 유경식석검이 타 지역보다 눈에 띄며, 유병식석검 역시 예외적으로 길림성 蛟河市的 東山석관묘(董學增 1992)에서 일단병식석검이 1점 보고된 바 있으나, 혈구이단병식석검은 아직 접하지 못하였다.

5)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부에 홈이 있는 유구경식비파형동검은 한반도 남부에만 분포하는 특수한 형식이기 때문이다(李健茂 1992).

6) 선암리나 대아리의 비파형동검에 대해서는 북한의 박진욱도 기존설을 폐기하고 연대가 가장 빠른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박진욱 1995).

도 출토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A군의 동검은 가락동유형 II기, 또는 III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인 B군은 일단병식석검과 일단경식석촉의 공반양상으로 보아 송국리유형 단계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약하자면, 청동기시대 전기전반에는 비파형동검의 대가품이자 위신재인 (혈구)이단병식석검만 존재하였으며, 전기중반 또는 후반이 되면 A군 비파형동검이 한반도 남부에 이입되면서 동검의 현지생산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부터 취락내에서의 최상위 위신재는 석검에서 동검으로 변화되는 것 같다. 이 보다 약간 늦은 송국리유형 단계부터 B군 비파형동검이 들어오고 동검의 현지생산은 가속화되면서, 동모·동촉·동부·동착 등 청동기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마제석검은 일단병식이나 유경식석검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러한 현상은 위신재의 최고 등급이 석검에서 비파형동검으로 옮겨가면서 석검 제작에 정성을 덜 기울이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집단내, 또는 지역단위의 최상위 엘리트들은 동검의 입수 및 제작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李亨源 2006). 지금까지 다소 장황하지만 전기 청동기시대의 핵심적인 문화 요소로 판단되는 마제석검과 비파형동검이 남한지역에 나타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한편 취락의 입지와 구조를 통해에서도 조기와 전기를 나눌 수 있다. 조기의 취락 입지가 총적지로 제한된 반면에⁷⁾, 전기부터는 총적지뿐만이 아니라 구릉으로 입지가 확산하기 때문이다. 주거지는 복수의 노지가 설치된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중,대형이 주체를 점하고 있는데, 공동거주형 주거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승옥 2006). 이는 후기가 되면 주거규모가 소형으로 축소되어 독립거주형으로 변화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와 더불어 전기부터 환호취락과 분묘가 새롭게 등장한다. 청원 대울리 환호취락(中央文化財研究院 2005)의 존재는 매우 돌출적인 현상이며, 분묘는 울산 굴화리유적 II지구의 2호 토광묘를 비롯하여 대전 비래동의 지석묘, 춘천 우두동의 석판묘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전기 청동기시대의 사회성격과 관련하여 배진성(2006)은 석검의 출현과 분묘의 축조, 그리고 청동기 등 부장품의 양상을 검토하면서 계층화를 논의하였다. 계층화의 개념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계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로서 전기 사회를 이해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김승옥(2006)은 “통합과 차별화의 태동”으로, 발표자는 “계층화의

7) 물론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지만, 앞으로 총적지 이외의 입지에서 조기 유적의 발견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땡아”로 이 시기의 사회성격을 표현한 바 있다(李亨源 2007a). 이와 같은 남한지역의 전기 청동기문화는 중국동북지역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서북한과 동북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李亨源 2002; 裴眞晟 2003; 安在皓·千羨幸 2004).

전기에 이어지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문화가 송국리유형으로 대표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그 이행과정에 대한 해석은 현재 뜨거운 논쟁이 진행중인데,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다. 외태기원설을 주장하는 쪽(이홍중, 김승옥, 우정연, 이진민 등)과 자체발생설의 입장에 서 있는 연구자들(안재호, 김장석, 나건주, 송만영 등)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발표자는 역삼동·흔암리유형(李亨源 2002)으로부터 송국리유형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므로(李亨源 2006a·2007b) 자체발생설의 지지자로 볼 수 있다.

어찌되었건 간에 전송국리유형을 포함한 후기의 송국리유형 단계는 전기와 비교할 때 매우 뚜렷한 고고학적 변화 양상이 간취된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토기에 대한 것만을 설명하고 다른 문화양상은 <표 2>로 대신하고자 한다.

후기의 토기문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기에 유행했던 문양이 지속 또는 퇴화되거나 소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안재호(1991·1992)의 편년연구 이후 후기전반⁸⁾에는 전기단계의 토기 전통이 이어지며, 후기후반에는 외반구연의 무문양토기인 송국리식토기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울산, 포항,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의 일부지역에서 공렬토기 전통이 늦은 시기까지 지속된다는 주장이 송만영(2002)에 의해 제기되면서 편년연구에 변화가 일어난다. 배진성의 2005년도 논문이 대표적인데, 그는 공렬토기 전통의 김단리유형을 새롭게 설정한 후, 이것이 후기후반의 송국리유형 시기까지 공존한 것으로 보았다(裴眞晟 2005). 물론 송국리유형의 분포 외곽지역에 속하는 강원지역이나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는 송국리식토기가 잘 확인되지 않아서 공렬토기문화가 지속된 것으로 이해되었다(宋滿榮 2001; 李亨源 2002; 김한식 2006). 이 가운데 강원 영서지역은 북한강유형(김권중 2005)으로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며, 경기 남부에서도 송국리유형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李亨源 2006a)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청동기시대 후기의 남한지역 토기문화는

8) 안재호의 1992년 논문에는 송국리유형을 중기단계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표에서는 2006년의 신3분기 설에 따라 후기로 표현한다. 이에 찬동하는 배진성(2006)의 글을 언급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표 2〉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시기별 주요 문화 요소

시기	조기	전기	후기
토기	말기줄문토기, 미사리식토기(돌대문)	미사리식토기, <u>가락동식토기</u> <u>역삼동식토기</u> , <u>흔암리식토기</u>	역삼동식토기 검단리식토기 <u>송국리식토기</u>
석기	삼각만입석촉, 반월형석도	<u>파제석검</u> , 삼각만입 · 이단경석촉, 반월형석도	<u>유구석부</u> , <u>삼각형석도</u> ,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석촉
청동기	不在	<u>비파형동검</u> , 동촉	비파형동검, 동촉, 동모, 동부, 동착
주거지	미사리식주거지 주거규모-대형 주거방식-공동거주형	(미사리식), 둔산식, 판산리식주거지 주거규모-대형 주거방식-공동거주형	장방형주거지 <u>송국리식주거지</u> 주거규모-소형 주거방식-독립거주형
분묘	不在(?)	지석묘, (주구)석관묘, 토광묘	지석묘, 석관묘, 석개토광묘 등
유적입지	총적지	총적지, <u>구릉</u>	총적지, 구릉
문화유형	미사리유형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 · 흔암리유형	<u>송국리유형</u> , 역삼동유형, 검단리유형, 북한강유형

지역차가 존재하면서 역삼동식의 공렬토기와 송국리식토기가 동시기에 공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전기의 상한과 하한

전술한 청동기시대 전기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이 시기의 물질문화 가운데 가장 빠른 단계와 가장 늦은 단계의 자료를 상대연대 중심으로 설명하고, 절대연대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기 세부 편년의 대강을 살펴본 후, 본격적으로 상한과 하한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말까지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은 무문토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돌대문토기를 제외하면 동북한계열의 역삼동식토기(공별문 중심)와 서북한계열의 가락동식토기(이중구연단사선문 중심)가 서로 접촉 없이 공존하는 前期前半과 이들 문양이 공반하거나 동일 개체에 시문되는 혼암리식토기 등장 이후부터를 前期後半으로 양분하는 편년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문양분류편년”은 2000년의 안재호 논문에서도 유지되는데, 그는 문양을 통한 분류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새로운 편년체계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安在皓 2000, 49).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발표자는 김장석(2001)의 혼암리유형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어서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의 3유형을 새롭게 개념규정한 후, 이들의 병존 편년안을 제시하였다(李亨源 2002). 여기에서는 주거구조의 변화, 토기의 문양속성이나 공반토기의 점유비율, 이중구연이나 단사선과 같은 세부속성의 계층치에 따른 형식학적 변천 등을 주요 편년근거로 삼았으며 절대연대측정치를 보완자료로 이용하였다. 남한 무문토기의 성립과 계통을 논의한 배진성(2003)의 논문 역시 3유형 병존 편년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또한 安在皓·千羨幸(2004)의 치밀한 “형식학적 속성분석법”에 의해 가락동식, 혼암리식, 역삼동식토기의 병존관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되었으며, 각목돌대문의 미사리식토기를 포함한 조기~전기를 종합적으로 다룬 千羨幸(2005)의 논문 역시 중요한 연구성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편년관을 발전적으로 이어받아 새로 확보된 자료를 추가하면서 전기의 상·하한자료와 연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상한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편년연구 성과(李亨源 2002; 安在皓·千羨幸 2004; 千羨幸 2005)와 앞서 살펴본 전기의 개념 설정에 의해서 추출된 전기의 상한자료, 즉 전기에서 가장 빠른 시점의 지역별 문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상대연대

(1) 서울·경기지역 (도면 2)

전기의 상한자료로서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가 특징적이며 돌대문토기도 존재한다. 하남 미사리유적 송실대 A8호 장방형주거지의 가락동식토기는 이중구연의 폭이 매우 짧고, 단



〈도면 2〉 서울, 경기지역의 전기 상한 자료 (주거지1/200, 유물1/8)

사선은 이중구연부 안에 시분된다. 여기에서는 공별문과 구순각목공별문이 공반되었다. 또한 미사리 서울대 A3호 장방형주거지에서는 역삼동식토기만 출토되었으며, 대각이 긴 적색마연대 부소호도 있다. 삼각만입석촉 가운데 中村大介(2005) 분류의 Ia식에 해당하는 가장 빠른 형식이 확인되었다.

인천 동양동유적(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2005)에서는 돌대문토기와 형식상 빠른 단계의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혈구이단병식석검, 동북형석도, 반월형석도와 함께 출토되었다⁹⁾. 주거지 출토품으로는 후술할 호서지역의 대전 궁동유적 예와 더불어 가장 빠른 단계의 마제석검으로

판단된다.

(2) 강원지역 (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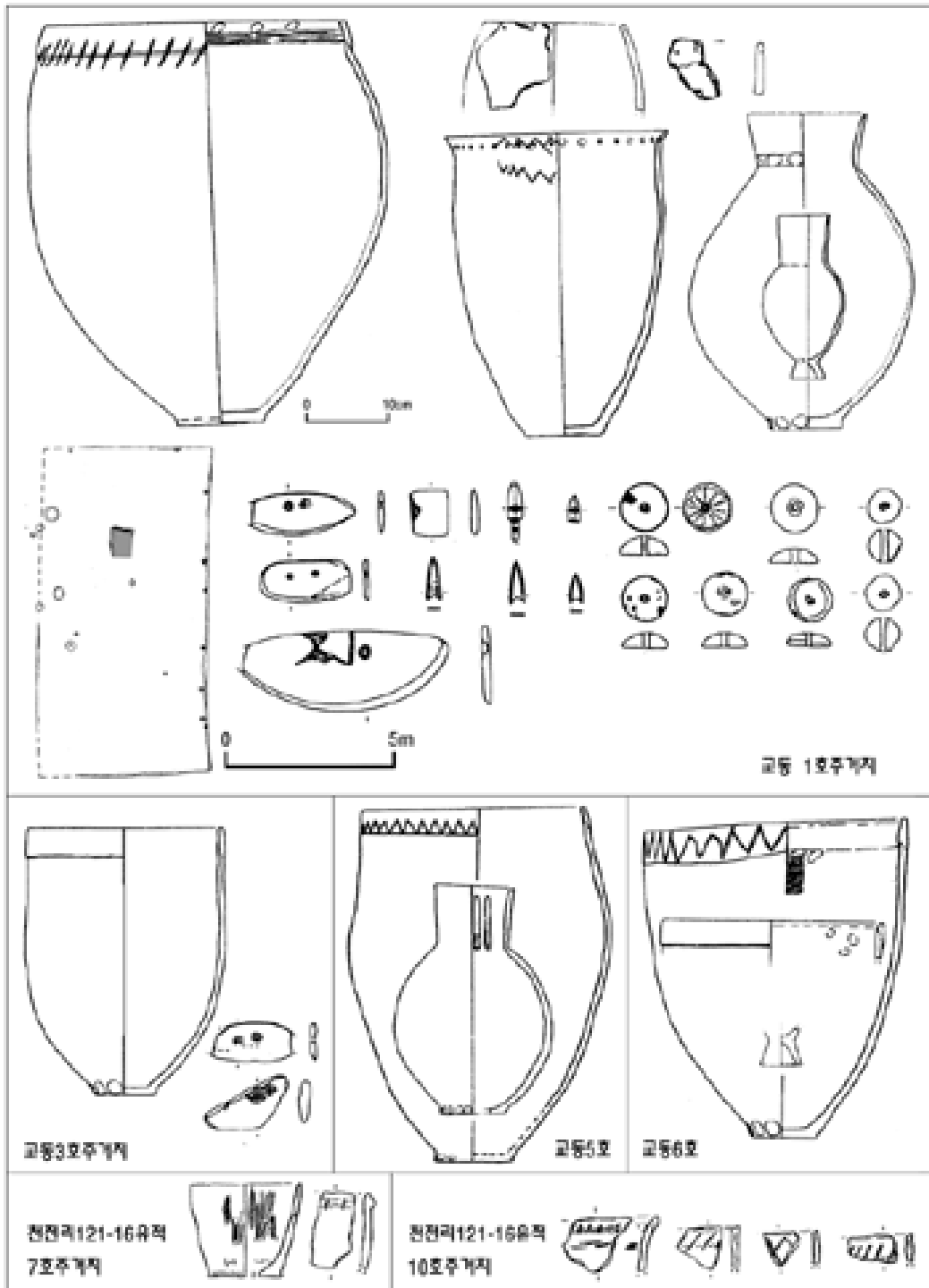
영서지역에서는 미사리식토기와 가락동식토기가 영동지역에서는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가 전기의 시작을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된다. 영서의 춘천 천전리121-16번지유적(鄭元喆 2007)은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홍촌 외삼포리유적(이희준 2007)은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5호 방형주거지(7.1×6.9m)에서 각목돌대문토기,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삼각만입석촉, 석도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외삼포리유적에서는 지석묘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묘에서 삼각만입석촉이 출토되었는데, 주거지와 같은 단계인지 아니면 약간 후행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위석식노지를 가진 장방형주거지에서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되고 있는 홍천 철정리유적도(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이들과 같은 단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영동지역의 강릉 교동유적(지현병외 2002)은 1호주거지의 경우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이중구연단사선이나 거치문이 시문된 가락동식토기가 주체를 점하고 있지만 돌류문의 역삼동식토기도 확인된다. 그리고 경부가 구연단까지 직선으로 곧게 뻗은 장경호가 공반되며, 이중에는 짧은 대각이 붙은 것도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장경호는 영남지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석기로는 반월형석도와 동북형석도, 삼각만입석촉, 이단경석촉, 석부 등이 있으며, 원추형의 토제 방추차도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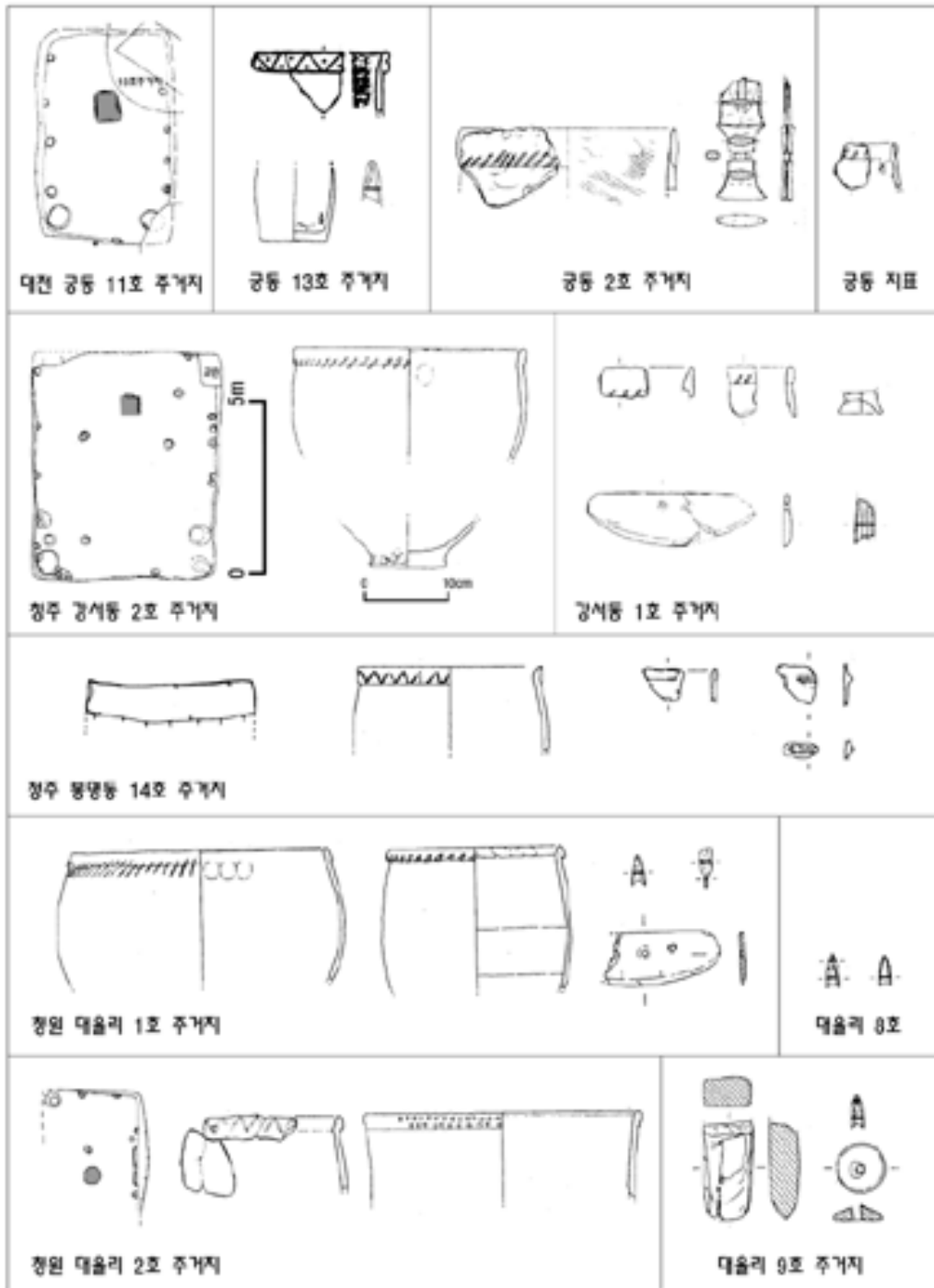
(3) 호서지역 (도면 4)

호서지역에서는 대전 궁동(이강승외 2006)을 비롯하여, 청주 강서동(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청원 대울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등이 전기에서도 이른 단계에 해당한다. 가락동식토기로만 구성되는 것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인데, 아마도 가락동유형의 강한 지역색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거지는 장방형주거지에 위석식노지나 무시설식노지가 설치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궁동유적 2호주거지에서는 最古단계에 속하는 혈구이단병식석검이

9) 유물관찰시 박자연 선생님을 비롯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중부조사연구팀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후의에 감사드린다.



<도면 3> 강원지역의 전기 상한 자료 (주거지/200, 유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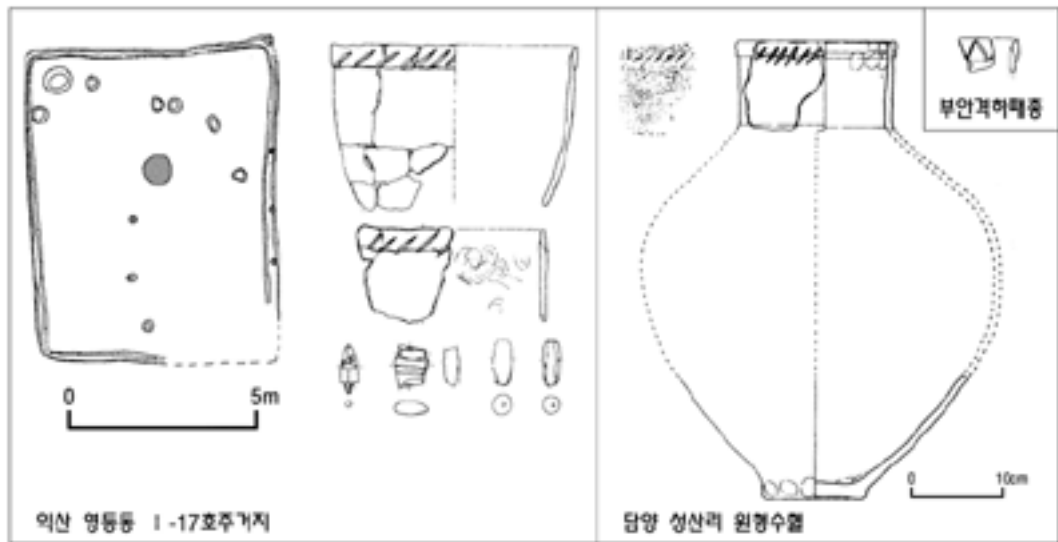


〈도면 4〉 호서지역의 전기 상한 자료 (주거지/200, 유물/8)

출토되었다. 그리고 대울리유적에서 환호가 확인된 것은 매우 돌출적인 현상이며,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지 않은 것도 이 지역에서는 다소 이질적이다. 다만 가락동유형의 기원지로 추정되고 있는 서북한 청천강유역의 구룡강유적에서도 대울리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이른 시기가 존재하는 점에서 가락동유형의 범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룡강유적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같이 확인되는 점에서 호서지역에서도 앞으로 이들이 공반되는 동시기의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것이다. 같은 시기로 편년되는 강원영서지역이나 영남지역의 유적에서 각목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의 공반 예가 존재하는 점에서도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4) 호남지역 (도면 5)

발굴조사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형식상 빠른 단계에 속하는 가락동식토기의 존재가 몇 예 알려져 있다. 익산 영동동 I-17호주거지(최완규외 2000)가 대표적이며, 부안 격하패총(김건수의 2005)의 이중구연거치문토기와 담양 성산리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04)의 수혈에서 출토된 호형의 가락동식토기도 이 단계에 속한다. 이 유적들보다 앞선 청동기시대 조기의 유적은 미사리유형에 해당하는 순창 원촌유적이(한수영외 2005) 유일하다.



〈도면 5〉 호남지역의 전기 상한 자료 (주거지1/200, 유물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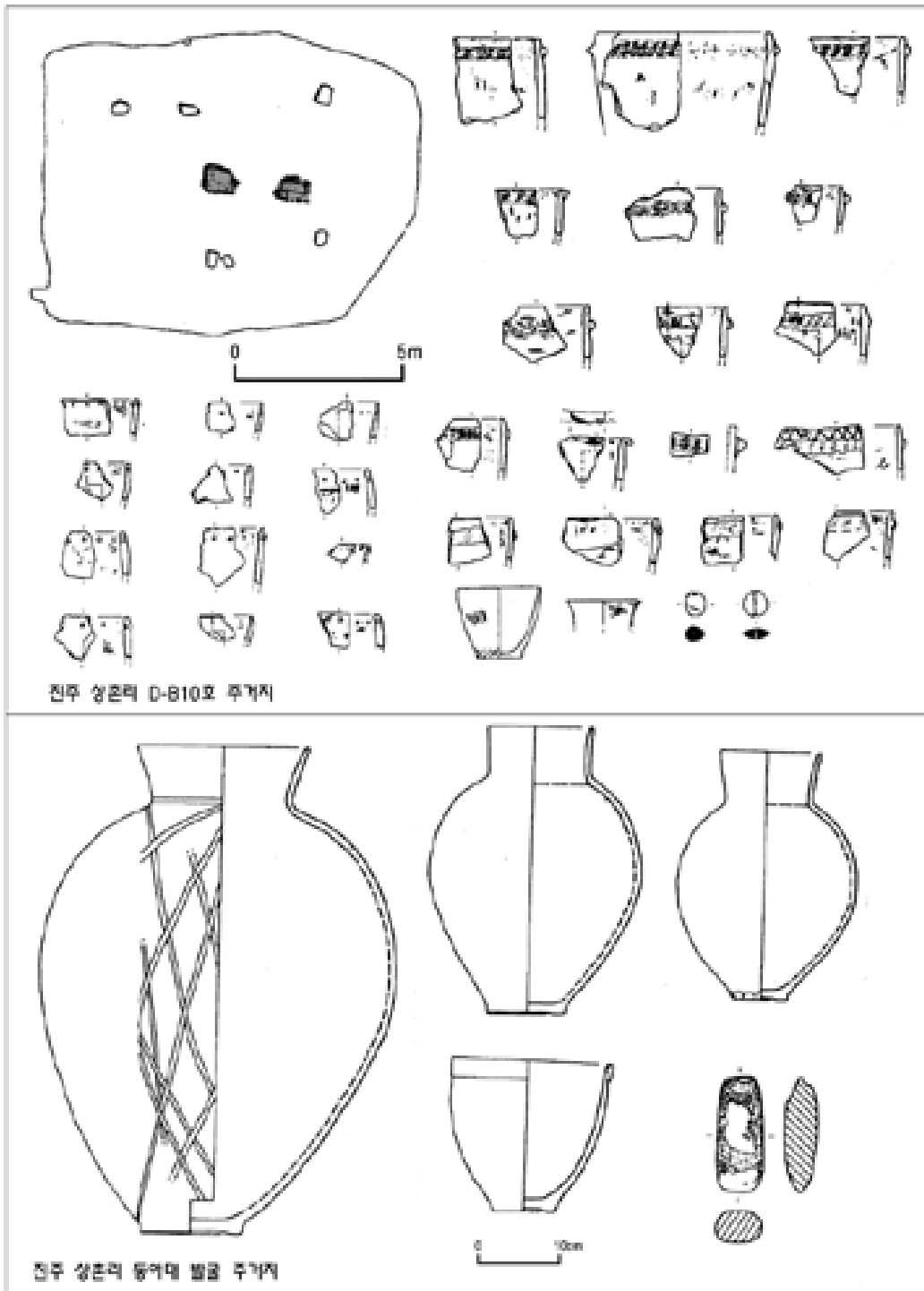
(5) 영남지역 (도면 6·7)

발표자가 추출한 영남지역의 전기 상한자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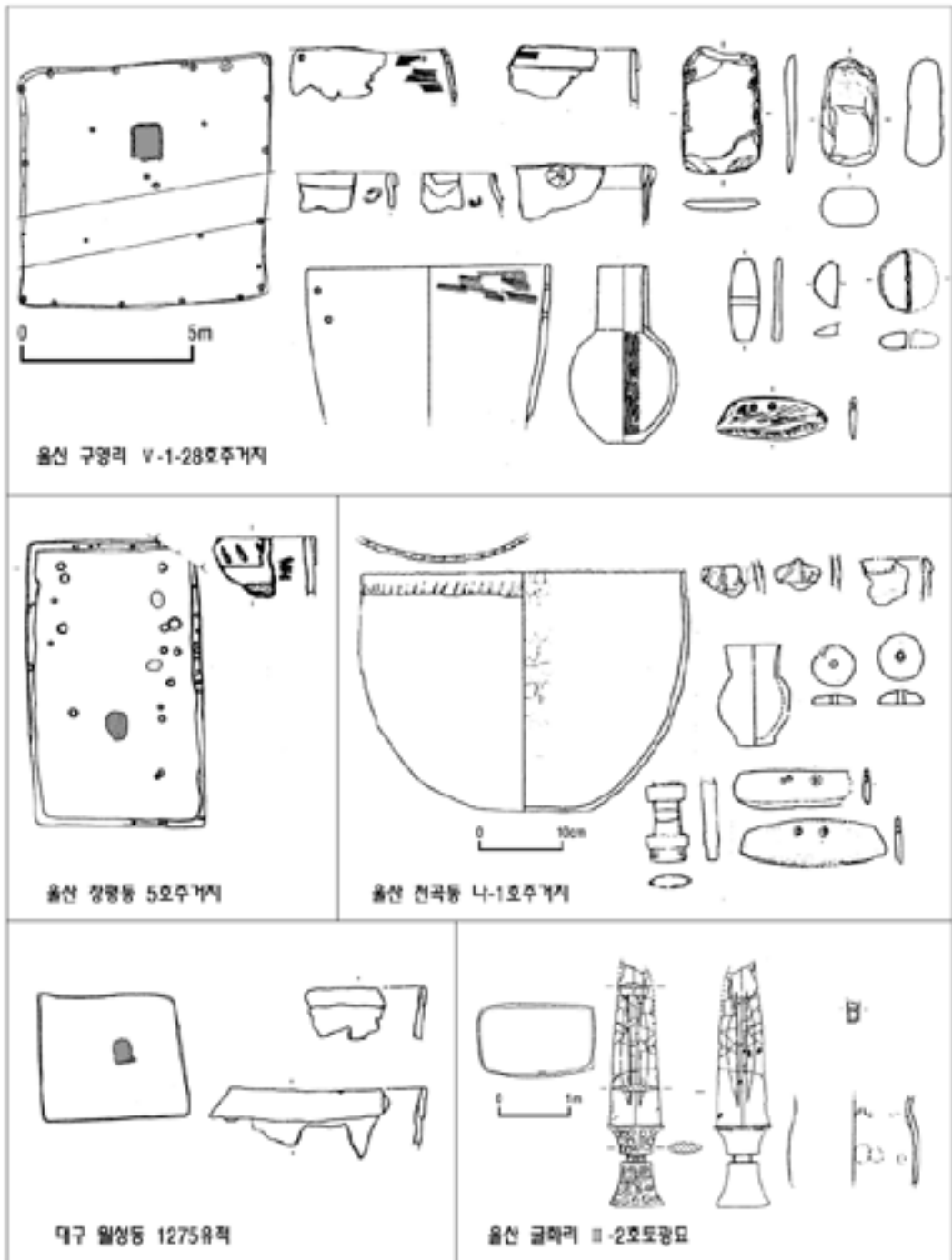
- 진주 상촌리 D-B10호주거지(최무장 2001) : 각목돌대문토기, 공별토기
- 울산 구영리 V-1지구 28호주거지(김호진의 2007) : 위석식노지, 이중구연심발, 장경호
- 울산 천곡동 나-1호주거지(유병일의 2005) : 이중구연거치문,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 장경호, 마제석검
- 울산 창평동 5호주거지(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 무시설식노지, 이중구연단사선토기
- 대구 월성동1275유적(이청규외 2006) 5호,15호,16호주거지 : 위석식노지, 이중구연토기, 장경호
- 진주 상촌리(심봉근 1999) : 이중구연심발, 무문장경호, 석부, ※ 공별토기 공반(김병섭 2003, 48)
-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이상길 1999; 국립김해박물관 2006) : 95호住-이중구연거치문 점별문, 이중구연심발, 77호住-절상돌대문, 이중구연거치문토기
- 울산 굴화리 II-1호 토광묘(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 혈구이단병식석검

상기 유적들을 청동기시대 전기의 상한연대에 속하는 동시기의 자료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언급할 수 있다. 주거구조에 있어서 무시설식노지도 있지만 (판석부)위석식노지가 설치되는 점, 토기는 미사리식토기, 가락동식토기, 역삼동식토기가 모두 확인되며 장경호도 공반한다는 점, 석기에서는 혈구이단병식마제석검이 존재한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배진성은 그가 소위 상촌리식토기로 부르고 있는 이중구연토기나 어은1지구 95호주거지의 이중구연+거치문+점별문토기를 재지의 즐문토기 전통에 기반을 둔 무문토기로 이해하면서 조기로 편년하고 있으나(裴眞晟 2003), 발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상촌리식 이중구연토기는 가락동식토기의 범주로 보며, 이를 포함하여 어은1지구나 대전 궁동유적의 이중구연+거치문+점별문토기는 재지의 말기 즐문토기보다는 서북한지역(압록강~청천강유역)이나 중국 요령지역 무문토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이 토기들이 위석식노지를 표지로 하는 가락동유형의 둔산식주거지에서 출토빈도가 높은 점도 이를 반증한다⁹⁾. 그렇지만 발표자 역시 일부 자료 중에는 울리식토기와 연결되는 자료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는 생각된다. 다만 현재 학계에 공표된 자료에 한정해서 볼 때, 미사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즐문토기-무문토기의 전환기에 해당 하는 조기의 예가 영남지역에 존재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신석기-청동기시대의 과도기적



<도면 6> 영남지역의 전기 상한 자료(1) (주거지1/200, 유물1/8)



〈도면 7〉 영남지역의 전기 상한 자료(2) (주거지/200, 유물1/8)

자료로서 언급되고 있는(李相吉 1999, 106) 대평리 어은1지구 유적의 발굴보고서 간행과 더불어 앞으로의 발굴성과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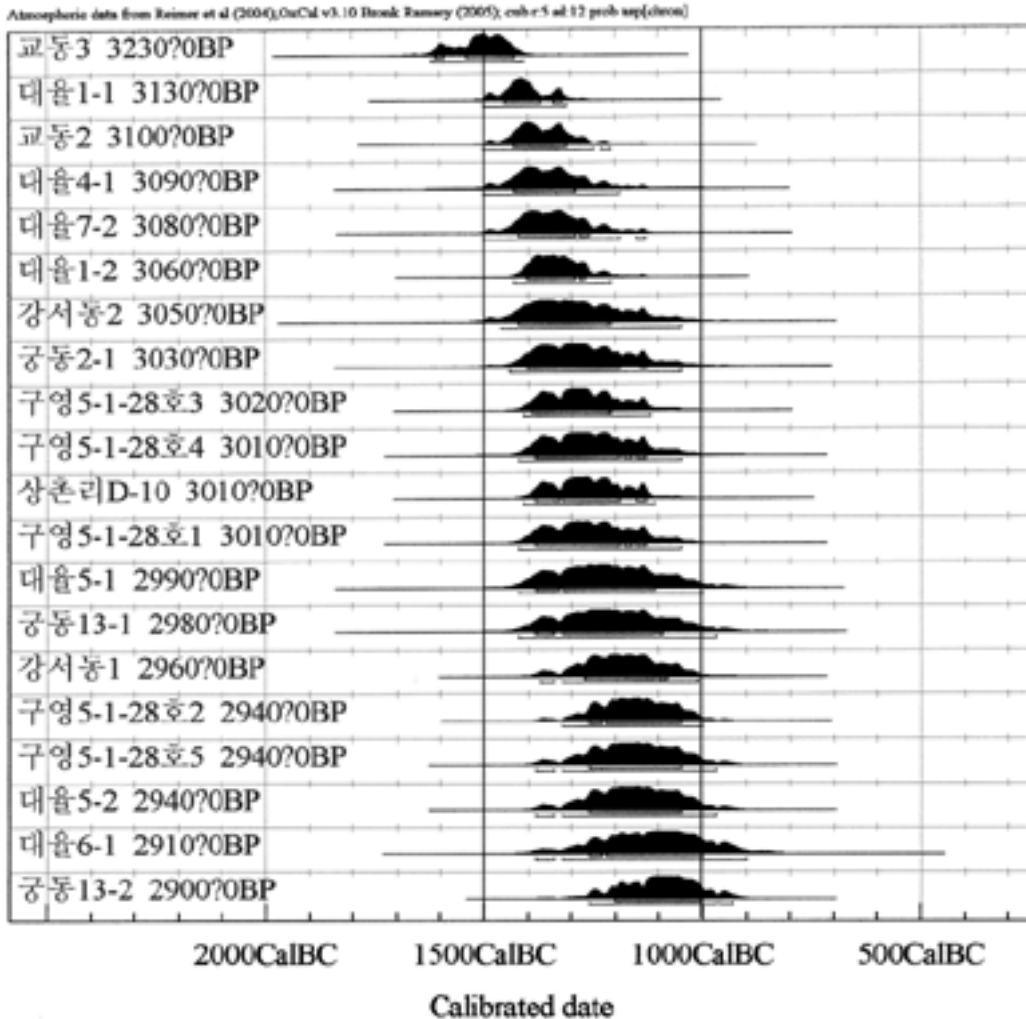
2) 절대연대

지금까지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전반, 이 중에서도 특히 가장 연대가 빠르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지역별로 검토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절대연대는 어떠할까.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결과로만 본다면, 상한연대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원전 13세기 이상으로 소급될 여지가 많다. 물론 방사성탄소연대의 정밀도는 시료의 오염이나 古木효과, 측정과정의 문제 등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적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연대결정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전기의 시작을 마제석검의 출현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마제석검의 기원을 요령지역의 비파형동검에서 구할 경우 이것의 상한연대는 비파형동검의 상한연대를 넘지 못하게 된다. 현재 비파형동검의 기원에 대해서는 요동기원설과 요서기원설로 양분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취하느냐에 따라 연대가 크게 달라다. 寧城縣의 小黑石溝나 南山根유적을 대표로 하는 遼西起源說의 입장에서는 비파형동검의 연대를 대체로 기원전 9세기대로 보며, 雙方유적의 비파형동검을 가장 이른 단계로 파악하는 遼東起源說 쪽에서는 기원전 12세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연대설정 근거는 서로 상이한데, 요서기원설은 비파형동검과 공반된 中原系 青銅禮器의 형식이나 銘文 등을 토대로 西周後期로 하며, 요동기원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C14연대를 근거로 한다(庄田愼矢 2005, 40-41).

발표자는 중국 동북지방 비파형동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어느 쪽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제시할 입장은 아니다. 절대연대측정치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원전 13세기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요동기원설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중국은 이미 역사시대에 해당하는 만큼, 비파형동검문화의 연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曆年代가 분명한 제품으로부터 연대를 찾을 필요가 있다. 商代(殷)이후의 중국에서는 왕의

10) 앞서 언급한 강원도 흥천 철정리유적에서도 이와 같은 이중구연토기와 각목돌대문토기가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에서 다량 출토된 바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발굴현장 견학시에 김권중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드린다.



〈표 2〉 청동기시대 전기 상한자료의 절대연대 측정결과

治世年이나 왕조의 기년이 남아 있지만, 명문이나 문헌사료에 의해서 역연대가 확실한 것은 西周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이다(岡内三眞 2005). 이러한 점에서 小黑石溝 8501호 석곽묘출토 비파형동검에 대해서 공반된 青铜容器(禮器)의 형식이나 명문을 통해 서주후기~춘추전기(近藤喬一 2000)로 볼 수 있으며, 실연대로는 기원전 9세기초(宮本一夫 2004) 또는 10세기초~9세기초(岡内三眞 2005)로 비정한 견해들이 있다¹¹⁾. 요서와 달리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은 이처럼 실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유적이 확인된 바 없어, C14연대측정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다만, 요서지역 분묘에 부장된 중원계 청동예기의 전세 가능성이라든지, 명문을 통해 결정된 실연대도 단순히 그 단계에 요령식동검이 존재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일 뿐, 요령식동검 자체의 연대

가 어느 단계까지 소급되는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宮本一夫(2004)의 지적을 주목하고자 한다(李亨源 2006b).

이상의 정리를 통해서 비파형동검의 발생 시기는 그 기원지가 어디든지 간에¹²⁾ 소흑석구의 명분을 통해 최소한 기원전 9~10세기까지 소급되는 것은 확실하며, 여기에 부장된 청동예기의 전세 기간이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를 고려한다면, 기원전 11~12세기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비파형동검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혈구이 단병석검의 발생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³⁾. 비파형동검 및 마제석검의 발생에 대한 200~300년의 연대 차이는 향후의 진전된 연구성과를 통해 接點이 찾아질 것이지만, 전술한 고고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현재로서는 기원전 10~13세기로 다소 안정적으로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남한지역 전기청동기문화의 상한연대 역시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우선은 잠정적으로 기원전 12~13세기까지 올려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하한

청동기시대 전기의 하한은 당연한 얘기지만 후기의 상한과 맞물려 있으므로, 이 두 시기의 문화양상을 같이 다루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상대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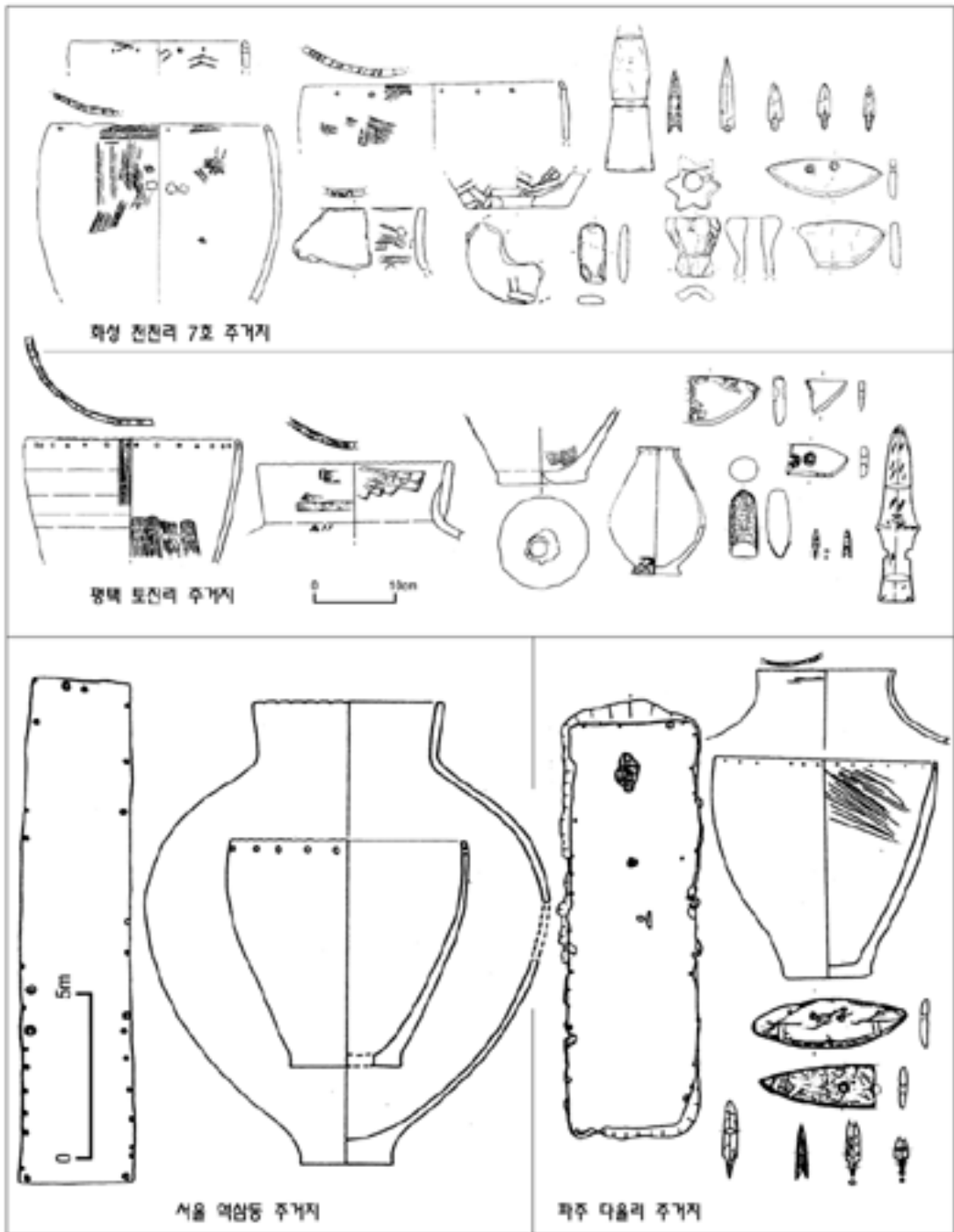
(1) 서울·경기지역 (도면 8)

서울, 경기지역의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는 이중구연과 단사선이 사라지고 공별과 구순각목의

11) 소흑석구 석곽묘의 보고자들은 유적의 연대를 하가점상층문화시기(서주중후기~춘추)로 하여 다소 넓게 설정하였다(項春松·李義 1995).

12) 발해만유역의 和尚溝유적 출토 비파형동검을 중국 동북지방에서 가장 이르게 보면서 실연대는 기원전 10세기 말~9세기 초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姜仁旭 2005).

13) 한편, 한반도 마제석검의 계보를 요령식동검이 아니라 시베리아나 길림성의 植刀式滑劍에서 찾기도 한다(春城秀爾 2006). 이에 따르면 석검의 실연대는 기원전 11세기까지 소급된다고 한다.



〈도면 8〉 서울, 경기지역의 전기 하한 자료 (주거지/200, 유물1/8)

역삼동식토기가 주체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李亨源 2002; 李眞旻 2004; 김한식 2006) 그런데 문제는 전기와 후기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시기의 귀속 위치가 달라진다. 발표자는 전기후반이 되면 퇴화이중구연화를 비롯하여 가락동식토기의 요소들이 쇠퇴하기 시작하며, 더욱 시기가 내려가면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역삼동유형의 물질요소 중심으로 변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어지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시작은 역삼동유형과 선송국리유형의 유구, 또는 유물 복합체가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전기후반과 후기전반의 역삼동유형은 여태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주거지의 규모이다. 전기후반의 주거지는 복수의 노지가 설치된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의 중,대형이 대부분이지만, 후기전반의 주거지는 주로 1개의 노지가 설치된 소형이 확인된다(김승옥 2006). 즉 다시 말해서 전기후반과 비교할 때, 후기전반의 문화양상은 무시설식의 (토광형)노지가 확인되는 장방형의 소형주거지에서 공렬토기나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는 양상과 토기상은 역삼동유형과 유사하지만 송국리식주거지¹⁴⁾와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등이 새롭게 조합을 이루는 양상¹⁵⁾이 동시기에 존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기후반부터는 저부투공토기가 많이 출토되며 일단병식의 마제석검은 손잡이 부분의 일단병이 일단병식화하면서 퇴화된다.

전기말로 편년되는 유적으로는 서울 역삼동, 파주 디올리, 인양 관양동(畿甸文化硏究院 2002), 평택 토진리유적(畿甸文化硏究院 2006) 화성 천천리유적(이남규외 2006) 등이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지역의 후기 유적으로는 화성 반송리(權五榮외 2007), 천천리유적과 평택 지제동(崔植苾외 2000), 토진리(中央文化硏究院 2005; 畿甸文化硏究院 2006), 소사동(俞炳隣·姜秉學 2005), 칠괴동유적(中央文化硏究院 2005)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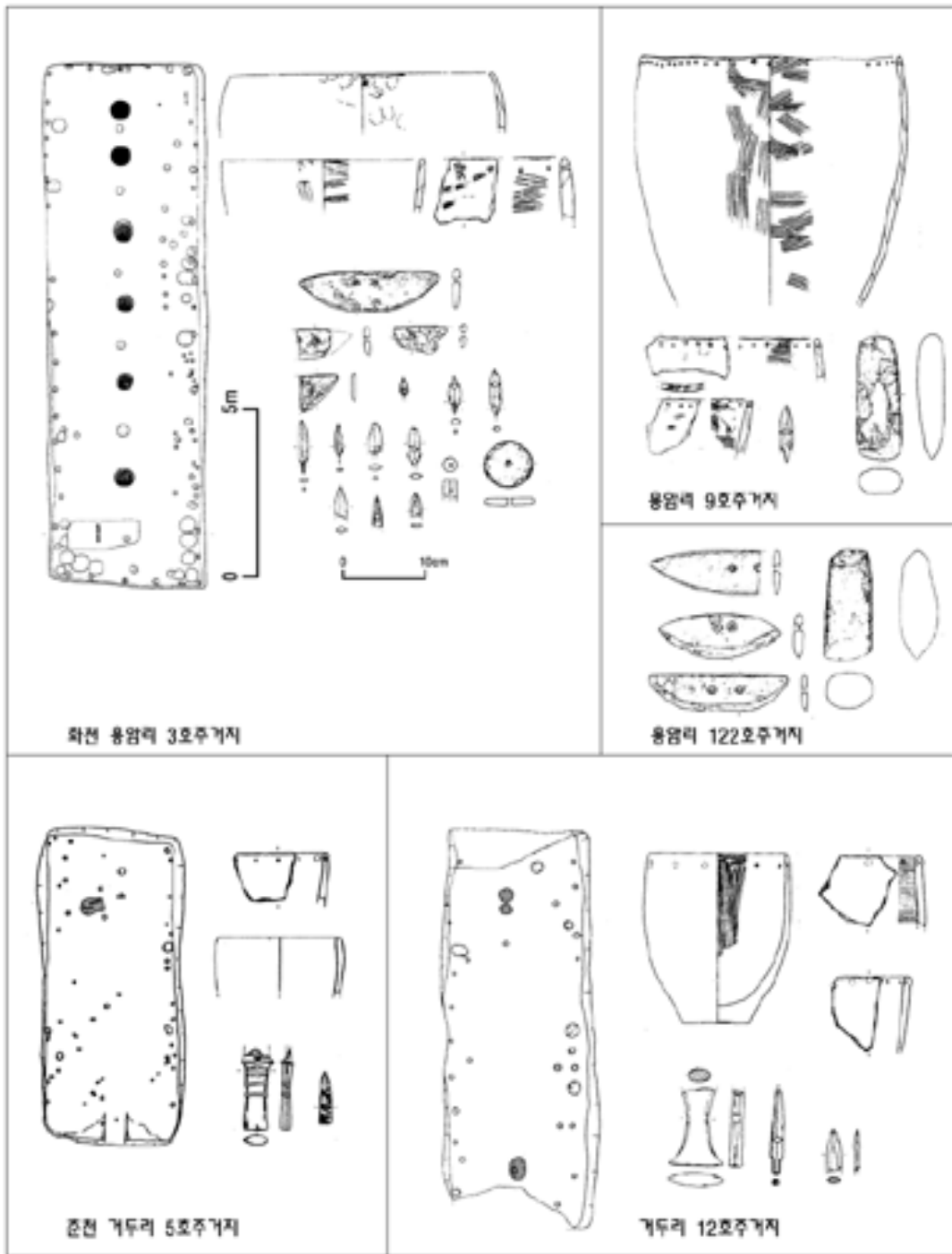
(2) 강원지역 (도면 9)

강원지역은 문화양상이 다소 차이가 있는 영서와 영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만 한다.

먼저, 영서지역은 김권중(2005)에 의해 춘천 천전리를 표지유적으로 하는 북한강유형이 설정되면서, 송국리유형에 대비되는 이 지역의 중기(발표자의 후기, 이하 후기로 부름) 문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강유형¹⁶⁾은 천전리식주거지(소형의 방형주거지, 중앙주공의 주축선배치, 수혈

14) 여기에는 휴암리식이나 반송리식주거지(李亨源 2006) 등이 모두 포함된다.

15) 일단경식석촉이 급증하며 일단병식과 유경식마제석검도 빈도가 높아진다.



〈도면 9〉 강원지역의 전기 하한 자료 (주거지/200, 유물/8)

식노지, 작업공 및 작업공간)와 유구석부, 일체형석축, 일단경식석축, 일단병식석검, 공별토기, 외반구연호로 이루어진다. 이 지역 역시 서울, 경기와 마찬가지로 후기인 북한강유형에 전행하는 전기의 늦은 단계는 역삼동유형의 유구, 유물복합체로 구성되는데, 화천 용암리유적(世賢柄 외 2007)이나 춘천 거두리유적(최종모 외 2003)이 대표적이다.

영동지역의 청동기시대 편년연구에 의하면 시간적 순서는 교동(I기)→조양동(II기)→방내리(III기)→포월리(IV기)단계로 이어진다(朴榮九 2004). 발표자는 공별토기 중심에 일단병식석검과 일단경식석축이 공반되는 양양 포월리유적을 후기로 편년한 바 있다(李亨源 2002). 포월리를 후기로 보면 전기의 하한은 방내리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양동 단계에 성행하던 이중구연이 퇴화된 古단계와 순수 공별토기만 존재하는 新단계로 나뉜다. 아직 영동지역의 청동기시대 편년상 전기의 하한과 후기의 상한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영서지역 또는 서울, 경기지역과 비교한다면, 공별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단계가 전기말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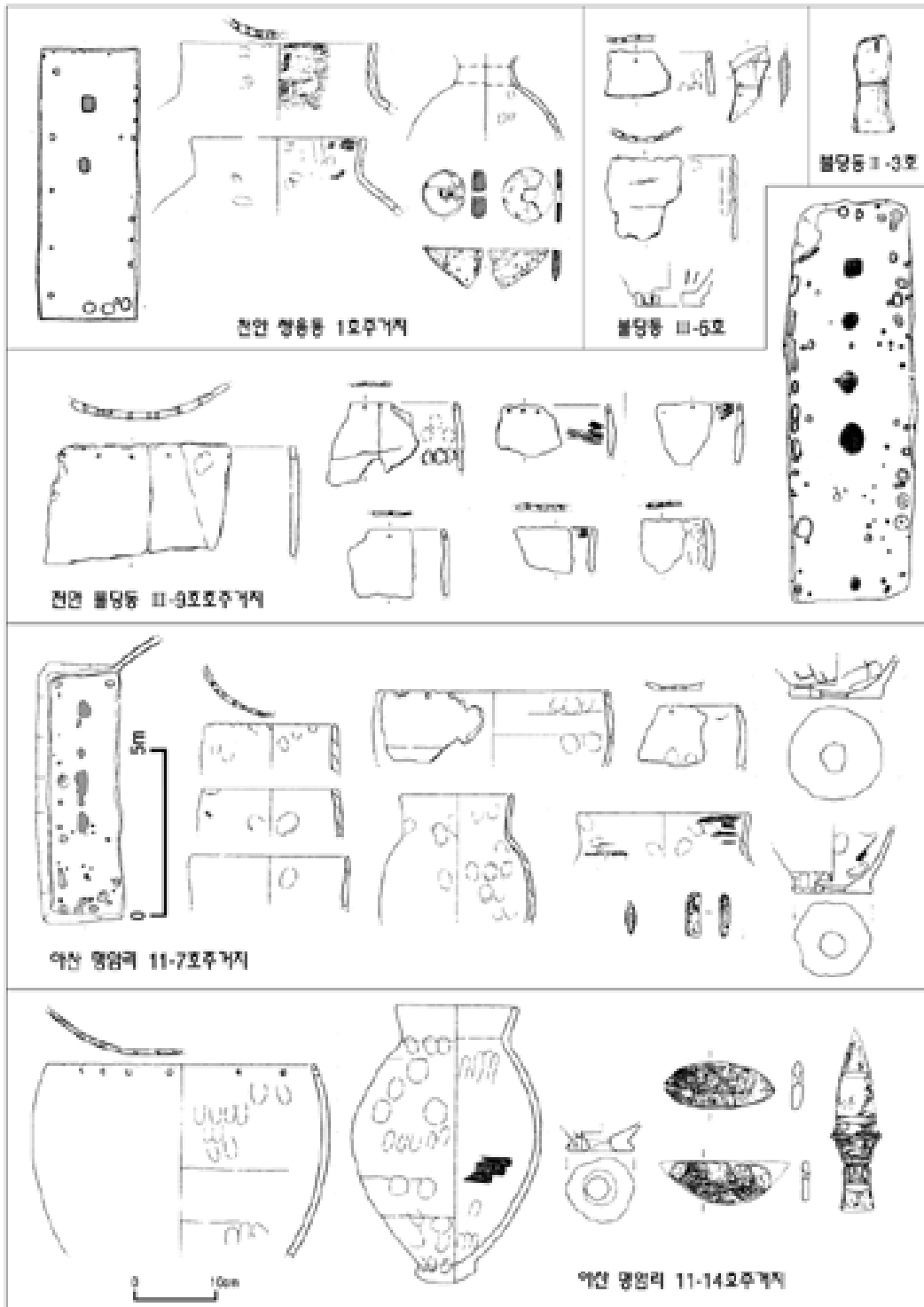
(3) 호서지역 (도면 10, 11)

이 지역은 차령산맥과 금강을 기준으로 그 이북과 이남이 문화양상을 달리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충청북서부에는 역삼동·흔암리유형이, 후자에 속하는 충청남동부에는 가락동유형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 충청북서부지역에 분포하는 역삼동·흔암리유형 유적들은 서울, 경기지역과 흡사하여 전기후반에는 이중구연의 폭이 넓어지거나 흔적만 남는 등 퇴화된다. 더욱이 전기말이 가까워지면서 이중구연이나 단사선 요소가 거의 사라지고, 공별토기 또는 구순각 목문이 주로 시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후반부터 저부투공토기가 급증한다. 마제석검의 경우는 단연결부가 좁아지는 등 퇴화된 일단병식의 형태가 많이 보이며, 반월형석도의 형태는 교인은 아니지만 삼각형에 가까워지는 현상도 간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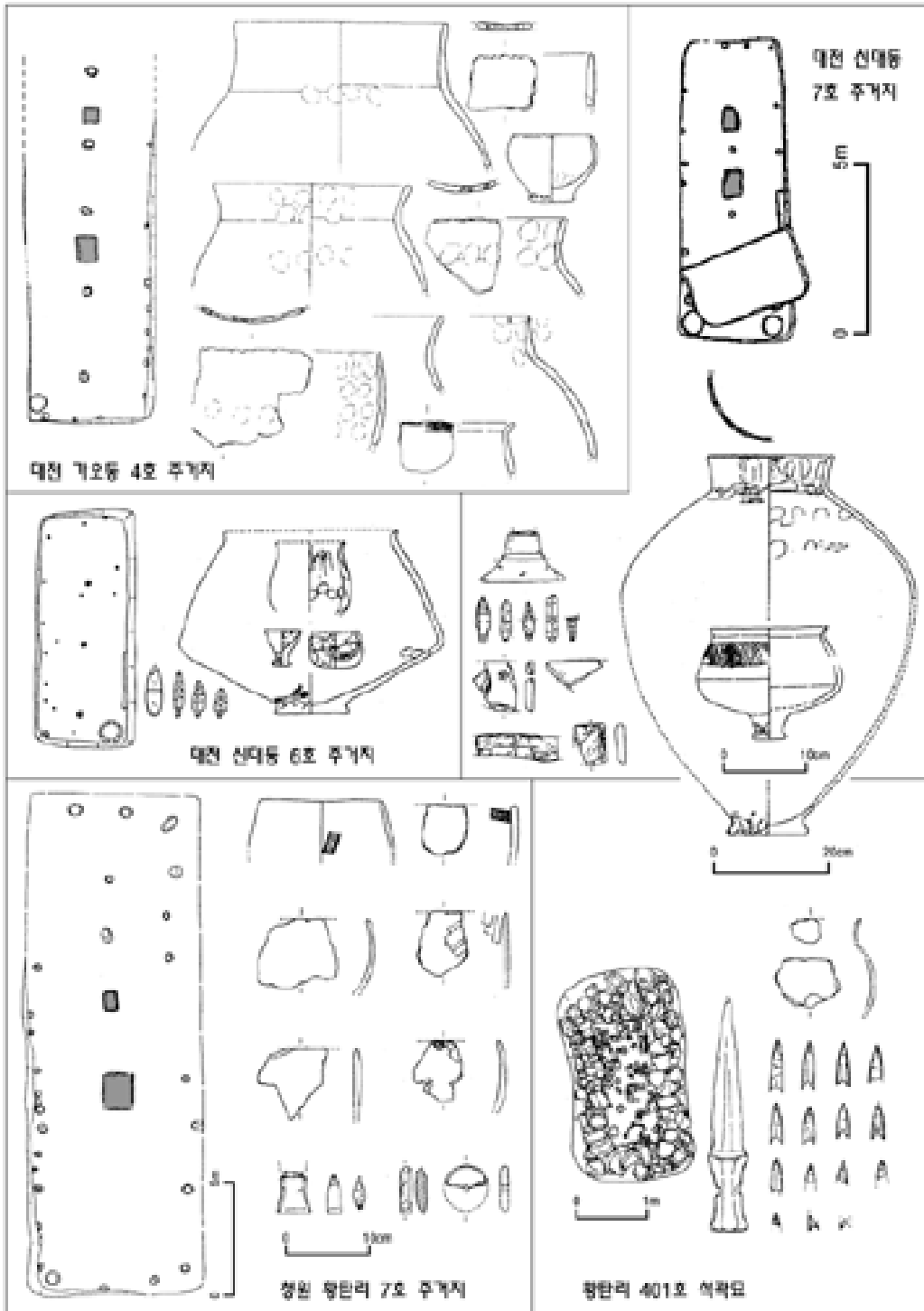
아산 명암리유적 11지점(羅建柱 외 2003), 천안 쌍용동 1호주거지(成正鏞 외 2002), 천안 불당동유적(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4) 등이 전기말로 편년된다.

한편, 차령산맥 남쪽에 해당하는 충청남동부의 내륙지역은 대전, 청주를 중심으로 가락동유형이 강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발표자의 편년안(李亨源 2007b)에 따르면 이 지역 가락동유

16) 발표자는 다른 유형과 같은 관점에서 대표유적명을 딴 “천전리유형”을 선호하지만(이형원 2005b), 여기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제안자의 명칭을 그대로 따른다.



〈도면 10〉 호사지역의 전기 하한 자료(1) (주거지/200, 유물/8)



〈도면 11〉 호서지역의 전기 하한 자료(2) (주거지/200, 유물/8)

형의 마지막 단계는 토기상으로는 이중구연과 단사선이 소멸하며 구순각목과 외반구연토기가 중심을 이룬다.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적색미연대부소호도 특징적이다. 석촉은 일단경식석촉이 급증하며, 형태상 삼각형을 띠는 석도가 보인다.

대전 가오동유적(中央文化硏究院 2003)을 비롯하여 신대동유적II 단계(李亨源 2006), 음성 하당리(中央文化硏究院 2004), 청원 황탄리유적(李引鍾 외 2002) 등이 있다.

(4) 호남지역 (도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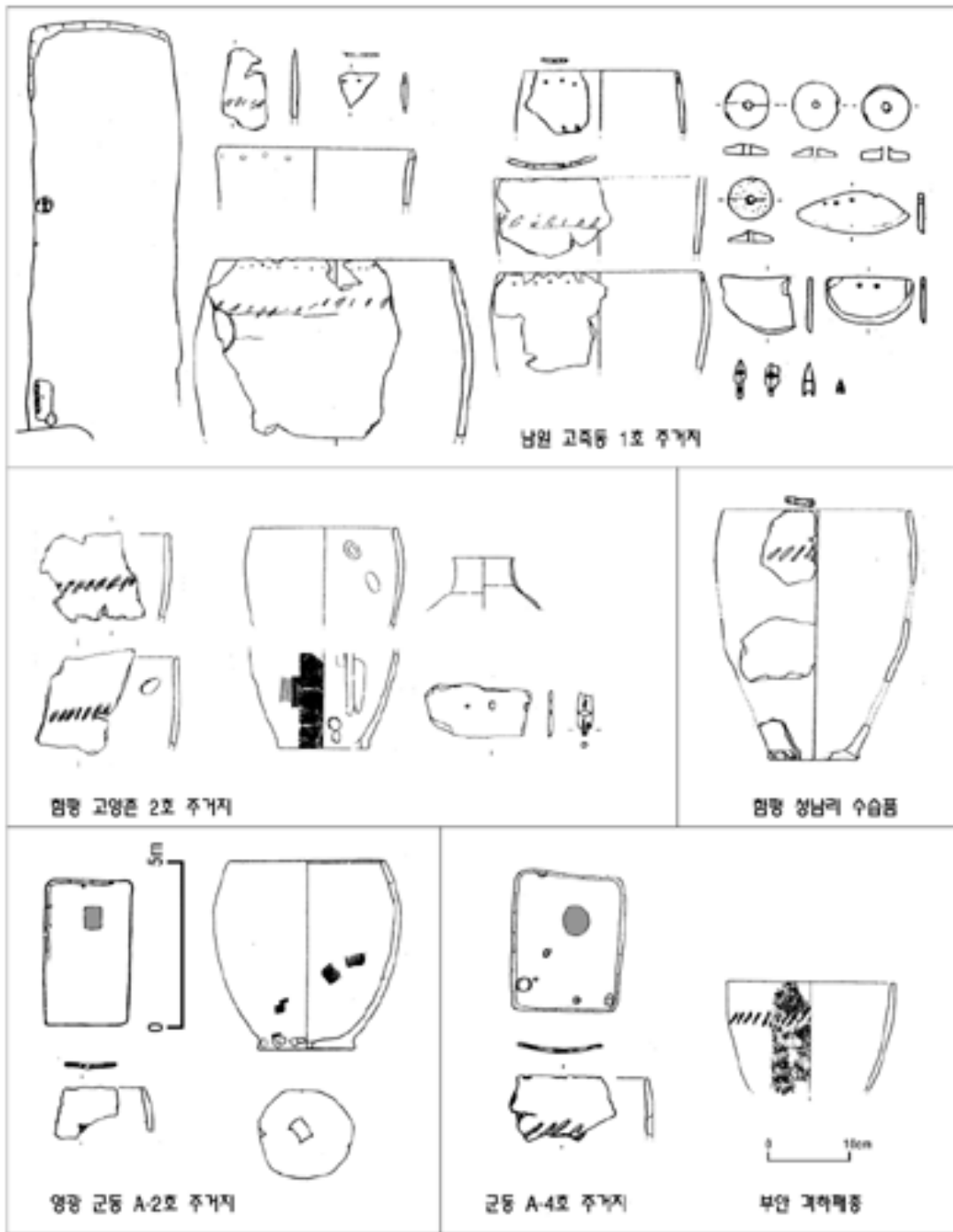
전기 청동기시대의 발굴자료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퇴화이중구연에 단사선이 시문되거나(함평 고양촌 단사선토기(부안 격하) 또는 구순각목+단사선토기(함평 성남리, 영광 군동) 등이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늦은 단계의 전기 무문토기로 판단된다. 퇴화된 이중구연의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는 남원 고죽동유적(全北大學校 全羅文化硏究所 1997)도 같은 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를 전기의 가장 늦은 단계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호서지역 전기말의 토기양상이 역삼동·혼암리유형의 경우 공별토기(구순각목포함)만 확인되거나 가락동유형의 경우 이중구연이나 단사선이 사라지고 구순각목이나 외반구연토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현상에서는 단사선문이나 구순각목문이 전기의 가장 늦은 단계까지 존속한 토기문양으로 이해된다. 관련 유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함평 고양촌(김건수·김영희 2004), 함평 성남리(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영광 군동(목포대학교박물관 2001)유적 등이 있다.

(5) 영남지역 (도면 13)

고고학자료의 양적 증가와 함께 청동기시대 연구, 특히 무문토기의 편년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김병섭 2003; 고민정 2003; 이수홍 2005; 천선행 2005 등). 영남지역 내에서도 지역권을 나누어서(남강유역권, 대구지역권, 동남해안지역권) 상대편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간에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전기후반의 토기문양은 공별과 구순각목문, 그리고 퇴화된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으로 구성된다(천선행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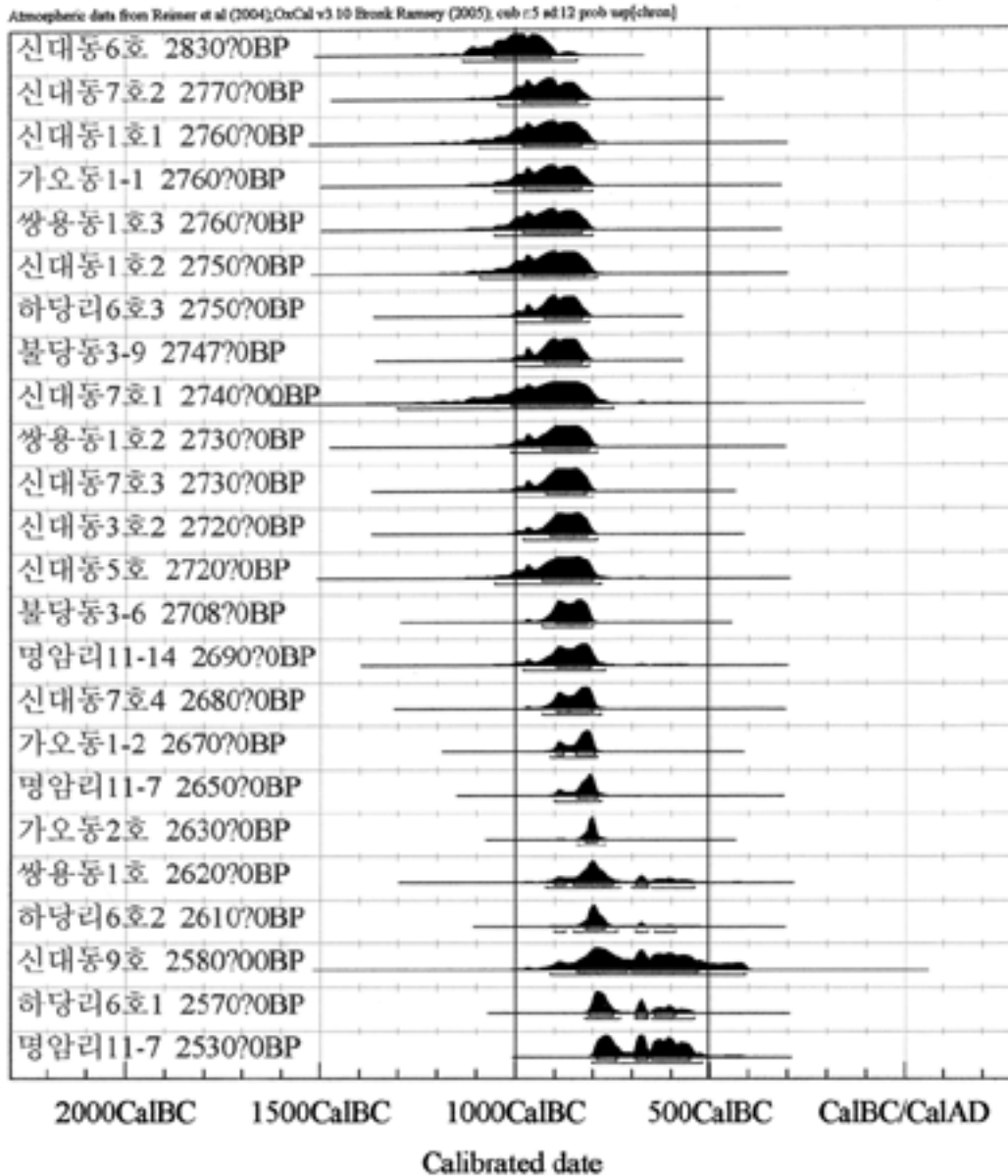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영남내륙의 경우 선송국리유형 단계에 공별토기나 구순각목토기가 지속되는 점에서 전기의 마지막 단계는 퇴화이중구연이나 단사선요소가 사라진 이후 공별, 구순각목문의 역삼동식토기로만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⁷⁾. 한편 동남해안지역의 경우, 후기의 (선)송국리유형과 병행하는 검단리유형(裴眞晁 2005)단계의 표지유물인 검단리식토기



〈도면 12〉 호남지역의 전기 하한 자료 (주거지1/200, 유물1/8)

2) 절대연대

청동기시대 전기의 하한연대는 필연적으로 후기의 상한연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최근 후기 특히 송국리유형의 형성에 대한 문제가 학계의 핫이슈가 되어 있고, 이는 일본 야요이시대의 개시연대와도 직결된다. 우선 호서지역의 자료에 한정해서 절대연대측정결과를 살펴보면 <



<표 3> 청동기시대 전기 하한자료(호서지역)의 절대연대 측정결과

표 3)과 같다. 대체적으로 최다 중복범위는 기원전 9~10세기로 결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과학적 연대측정의 잠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 시기에 역사시대에 해당하는 중국의 기년명 자료와 공반유물에 대한 비교연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고고학계에서 이 분야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더욱 진전된 연구성과가 도출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보다 사실에 가까운 실연대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남한지역 전기 청동기시대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한 후 이에 따른 상한과 하한자료를 검토하였다. 느낀 점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사실, 청동기시대 전기의 편년은 오랜 기간 동안 토기의 문양분류에 따라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정해져왔다. 전기전반(역삼동유형, 가락동유형 공존) → 전기후반(흔암리유형=역삼동유형+가락동유형) 편년이 그것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와 같은 통설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편년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기존의 “문양분류편년본”은 그 입본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론 현재도 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 나름대로 유용한 편년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번에 발표한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은 최근의 편년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한과 하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지만, 이 역시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우선 각 시기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편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그렇게 설정된 단계 내에서의 시간축이 발표자가 의도한대로 틀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갈지도 의문이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고고학의 기본인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형태가 靜的이 아닌 動的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년연구가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혹 편년연구를 등한시하는 고고학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발표자는 편년연구야말로 고고학연구의 총체라고 표현하고 싶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또는 짧은 시간단위든시간에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문화양상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편년연구는 고고학의 모든 연구분야와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주제에 따라 거시적으로, 때론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앞으로 다양하고 정치한 편년방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편년설정이 이

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금번 발표의 절대연대와 관련해서는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李盛周 1996) 중국의 기년명자료와 공반유물의 검토를 통한 비교연대 연구가 질실하게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국문〉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홍천 구성포-두촌간 도로확·포장공사내 유적 발굴조사 홍천 철정유적Ⅱ-3차지도위원회의 자료-』.
- 姜仁旭 2005, 「韓半島 出土 琵琶形銅劍의 登場과 地域性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49.
-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석탄리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12집.
- 국립김해박물관 2006, 『轉換期의 先史土器 資料集』
- 金建洙·金永熙 2004, 『潭陽 城山里遺蹟』, 湖南文化俱利研究院.
- 김권중 2005, 「嶺西地域 靑銅器時代 住居址의 編年 및 性格」, 『江原地域의 靑銅器文化』, 강원고고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요지.
- 金炳燮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期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60
- 金元龍 1986, 『韓國 考古學 概說』, 一志社.
- 金卮錫 2001, 「흔암리유형 재고 : 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28.
-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5-1
- 김현식 2006,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형성과정과 출현배경-」, 『韓國上古史學報』54
- 羅建柱 2006, 『前·中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過程에 대한 考察』, 충남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羅建柱·姜秉權 2003, 『牙山 鳴岩里遺蹟(11·3地點)』, 忠清埋藏文化俱利研究院.
- 리경철 1996, 「석정리집자리유적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996년제4호,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함평 성남·국산유적』.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영광 군동유적』.
- 朴淳發 1993a,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 철기문화」, 『한강유역사』, 민음사.
- 朴淳發 1993b,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對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3.
- 朴淳發 2003, 「羨沙里類型 形成考」, 『湖西考古學』9.
- 朴榮九 2004, 「嶺東地域 靑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江原考古學報』3.

- 박진옥 1995, 「고조선의 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한 재검토」, 『조선고고연구』1995-2.
- 裴眞晟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32.
- 裴眞晟 2005, 「檢丹里槩型의 成立」, 『韓國上古史學報』48.
- 裴眞晟 2006, 「北韓 無文土器의 編年-早期~前期를 中心으로-」, 『轉換期의 先史土器 資料集』, 국립김해박물관
- 宋滿榮 1995, 『中期 無文土器時代 文化의 編年과 性格』崇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宋滿榮 1997, 「中西部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 『崇實史學』10.
- 宋滿榮 2001, 「南韓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의 構造와 變化에 대하여」, 『한국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 沈奉謹 1984, 「密陽 南田里와 義昌 平城里遺蹟 出土遺物」, 『尹武丙博士 回甲紀念論議』, 通川文化社.
- 沈奉謹 1999, 「晉州上村里出土 無文土器 新例」, 『文物研究』3.
- 安在皓 1991,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安在皓 1992, 「松菊里槩型의 檢討」, 『嶺南考古學』11.
- 安在皓 1996, 「無文土器時代 聚落의 變遷」, 『碩吾尹容鎮樹授停年退任紀念論議』.
- 安在皓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俞炳一·裴順喜·金盛植·金鍾昊 2005, 『蔚山 泉谷洞豐壤(나 地區)』, 蔚山發展研究院文化財센터
- 李康承·禹在柄·李亨源·楊慧珍·姜胎正·韓辰淑 2006, 『弓洞』, 忠南大學校博物館
- 李健茂 1992, 「松菊里型 住居分類式論」, 『韓國史學論議』, 一潮閣.
- 李健茂 1994, 「韓國式銅劍文化의 性格-成立背景에 대하여」, 『東아시아의 靑銅器文化』,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 李健茂 2006, 「韓國의靑銅器文化의起原」, 『古代アジアの靑銅器文化と社會』, 國立歷史民俗博物館
- 李白圭 1974, 「京畿道 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土器編年을 中心으로-」, 『考古學』第三輯, 韓國考古學會.
- 李相吉 1999, 「晉州 大坪 漁隱地區 發掘調査概要」, 『남강선사문화 세미나 요지』, 東亞大學校博物館
- 李盛周 1996, 「靑銅器時代 東아시아 世界體系와 韓半島의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23.
- 李秀鴻 2005, 「檢丹里式土器의 時空間的 位置와 性格에 대한 一考察」, 『嶺南考古學』36
- 李榮文 2002, 『韓國 支石墓 社會 研究』, 學研文化史.
- 李眞皎 2004, 「중부지역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韓國考古學報』54.

-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1.
- 李亨源 2001, 「可樂洞類型 新考察」, 『湖西考古學』4・5.
- 李亨源 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研究』, 충남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李亨源 2003, 「青銅器時代 前期 聚落의 編年 및 構造 試論」, 『國立公州博物館記要』3.
- 李亨源 2005a,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의 接觸對相-中西部地域 住居遺蹟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12.
- 李亨源 2005b, 「嶺西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의 編年 및 性格에 對한 托론문」, 『江原地域의 青銅器文化』, 강원고고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요지.
- 이형원 2006a, 「천천리 취락의 편년적 위치 및 변천-송국리유형의 형성과 관련하여-」, 『華城 泉川里 青銅器時代 聚落』, 한신대학교박물관.
- 李亨源 2006b, 「弓洞 青銅器時代 聚落의 編年的 位置와 性格」, 『弓洞』, 忠南大學校博物館.
- 李亨源 2007a, 「盤公里 青銅器時代 聚落의 構造와 性格」, 『華城 盤公里 青銅器時代 聚落』, 한신대학교박물관.
- 李亨源 2007b, 「湖西地域 可樂洞類型의 聚落構造와 性格」,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聚落의 變遷』, 제15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문, 『湖西考古學會』
- 李弘鍾 1996, 『청동기사회의 토기와 주거』, 서경문화사.
- 李弘鍾 2002, 「松菊里文化의 時空的 展開」, 『湖西考古學』6・7合輯.
- 李弘鍾 2005, 「松菊里文化의 文化接觸과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48.
- 李弘鍾・姜元杓 2001, 『黃灘里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硏究所.
- 林炳泰 1986, 「韓國 無紋土器의 研究」, 『韓國史學』7, 韓國精神文化硏究院.
- 庄田愼矢 2005a, 「湖西地域 出土 琵琶形銅劍과 弥生時代 開始年代」, 『湖西考古學』12.
- 庄田愼矢 2005b, 「玉 關聯 遺物을 통해 본 晉州 大坪 聚落의 分業體制」, 『嶺南考古學』36.
- 정한덕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에 對한 托론」, 『湖西考古學』創刊號, 湖西考古學會.
- 全北大學校 全羅文化硏究所 1997, 『南京 高竹洞遺蹟 發掘調査報告書』.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57.
- 千羨幸 2006, 「영남지방 무문토기시대 중기로의 문양구성 변화」, 『石軒 鄭登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釜山考古學硏究會・論叢刊行委員會.
- 崔完奎・金鍾文・金奎正 2000, 『益山 永登洞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 崔植苾・河文植・皇甫慶 2000, 『平澤 芝制洞』, 世宗大學校博物館.

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 碩士學位論文.

河仁秀 2006, 『韓半島 南部地域 櫛文土器 研究』, 민족문화.

한국고고학회 2007, 『한국 고고학 강의』사회평론.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인천 동양택지개발사업지구(1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문화재조사연구단 발굴10년』

〈日文〉

岡内三眞 2005, 「中國東北地區銅劍文化の形成と展開」, 『社會考古學の試み』, 同成社.

宮本一夫 2004, 「中國大陸からの視點」, 『季刊考古學』88.

近藤喬一 2000, 「東アジアの銅劍文化と向津具の銅劍」, 『山口縣史』資料編 考古1.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 『弥生文化の研究3』弥生土器 I, 雄山閣.

安在皓 2004, 「韓國無文土器の炭素14年代」, 『弥生時代の實年代』, 學生社.

安在皓・千羨幸 2004, 「前期無文土器の文様編年と地域相」,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有光教一 1959, 『朝鮮磨製石劍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第二冊.

中村大介 2005, 「無文土器時代前期における石鏃の變遷」, 『待籟山考古學論集-都出比呂志先生退任記念』, 大阪大學考古學研究室.

中村大介 2006, 『弥生文化形成過程の研究』大阪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

春城秀爾 2006, 『考古學まどう検証したか』, 學生社.

後藤直 1973, 「南朝鮮の無文土器-その變遷について-」, 『考古學研究』75.

〈中文〉

董學增 1992, 「試論西團山文化所反映的漁獵經濟」, 『西團山文化學術論文集』, 吉林市博物館.

項春松・李義 1995, 「寧城小黑石溝石櫛墓調查清理報告」, 『文物』1995-5.